



다양하고 튼실한 난대식물 빼곡히

기후 분포는 크게 한대-냉대-온대-열대로 나뉜다. 식생구분에 쓰이는 '난대(暖帶)'와 '아열대(亞熱帶)'는 기후분류로 볼 때는 온대기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속한 북반구에서의 식물분포는 적도로 부터 북상하면서 열대-아열대-난대-온대-아한대-한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온대이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식물 분포상을 보면 온대식물과 난대식물이 함께 공존한다. 전남 진도는 남쪽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난대식물들이 많다. 특히 첨찰산에 자리하고 있는 쌍계사의 계곡숲은 우리나라 사찰숲으로서 가장 다양하고 튼실한 난대식물상을 보여준다. 첨찰산은 해발 485m로, 진도에서 가장 높다. 대홍사가 있는 두류산의 한 줄기가 한려수도에 방울 튀어 생긴 섬이다. '첨찰산(尖察山)'이라는 지명이 암시하듯이, 그 옛날 정상에 봉화대를 세워 바다 물목을 지켜던 산이다. 그 산에 도선 국사가 들어와 쌍계사를 얹힌 것이 신라 하대 문성왕 때인 858년의 일이라고 한다. 이룩한 원도 청해진의 장보고가 쓰러진 지 10여 년, 국사가 동리산문의 해철 문하에 든 지 또한 10여 년 만의 일이다.



쌍계사 푸조 나무

일주문을 들어서면 들어가는 길 좌우로 삼나무와 히말라야삼나무 등 키 큰 나무들이 도열해 서 있다. 일주문 안에 민가가 들어 있어서 짙 분위기는 해탈 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쌍계사 경내는 높고 낮은 3단 석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단에 자리한 해탈문을 지나면 중단에 범종각과 우회루가 자리하고 있다. 마당을 가운데 두고 상단에는 대웅전과 시왕전, 그리고 원통전이 있다.

경내식생을 보면, 하단 주변은 동백과 난대활엽수 몇 종이 있고, 중단 우측에는 약간의 왕대숲이 자리하고, 상단 뒤로는 동백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경 가치를 띤 나무로는 해탈문 앞 동백과 우회루 앞 향나무, 그리고 몸집 큰 팔손이나무 등이 있다. 절에서 차나무 묘목을 길러서 차밭을 조성하고, 해마다 가을이면 절에서 키운 국화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현재 주변에 동백이 있던 하지만, 일주문과 진입로와 해우소 주변을 비롯해 경내외에 동백숲을 좀 더 넓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경내 나무 꼭대기에 콩새 한 쌍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콩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다. 전체적인 색조는 붉은 빛이 도는 회색이며, 목이 굵으며 꽂지가 짧다. 딱딱한 열매를 쪼아 먹기 좋게 부리가 굵고 단단하다.

쌍계사 숲에는 육지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다 말고 도중에 하차하여 겨울을 나는 여름철새들이 가끔 눈에 띈다. 호랑자빠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쌍계사라는 이름은 절 양쪽으로 두 물줄기가 계곡을 이루며 흐르고 있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두 계곡의 물줄기는 진도에서 가장 긴 신선천의 최상류로서 절 아래 사하촌에서 합류하여 사천저수지로 유입되었다가 바다로 유입한다.

절 앞의 신선천은 상류지역이라 계절에 따른 유량 변동이 심해서 강수가 많을 때는 유량이 많고 유속도 빠르지만, 지금과 같은 겨울 갈수기에는 많이 떨어진다. 하상은 모래, 자갈, 바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밀어, 버들떡, 미꾸리, 왕종개 등이 소(洞)에 모여서 살고 있다. 밀어는 망둥어과의 작은 물고기로, 길이가 5-10cm



가시나무



밀어



콩새

정도이다. 몸은 원통형으로 길며, 꼬리 부분으로 가면서 납작하다. 주둥이가 길고 입이 큰 편이며, 배에 붙은 지느러미는 빨판 기능이 있어서 돌에 잘 달라붙는다. 돌에 붙은 미생물과 수서곤충을 먹고 산다.

천연기념물 난대상록수림은 의신천의 최상류인 쌍계사 계곡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 상록수림은 2007년도에 '아름다운 천연의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탈문에서 첨찰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산행로가 상록수림을 관통하고 지나간다.

쌍계사에서 산행로를 따라 숲에 들어가보면 첨찰산의 산림도양이 그리 비옥하지 않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첨찰산은 바위산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사태(砂汰, mass movement)가 일어나서 작은 돌들이 경사면을 덮게 되었다. 흘러내린 돌과 바위들이 계곡까지 내려와 있다.

산행로를 따라 숲을 들어서면 겨울 한낮에도 상록수림이 만드는 숲 그늘로 해서 주위가 어두워진다. 상록수림은 에너지 현대화가 되기 전까지 사하촌인

천연기념물 난대 상록수림 쌍계사 계곡 따라 형성 동백·후박·구실잣밤나무·가시나무 등 50여종 분포

사천리 마을사람들이 건축용재나 연료재로 나무를 많이 베어내 현재의 면적은 1만2000m로 좁아졌다. 이곳의 난대상록수는 동백, 후박,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를 비롯해 약 50종이 분포되어 있다.

난대상록수의 특징은 대개 잎이 두껍고 표면이 왁스층으로 덮여 있다. 엽록소 함량이 많고 광합성 능력이 높아서 내음력이 강하다. 그래서 키 큰 나무 아래에서도 잘 자란다.

이곳의 동백은 꽃이 시달잡다. 이웃한 잡목과의 생존경쟁을 벌이다 보니 키만 커지고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동백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잡목들을 제거하여 상록수림을 동백숲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상록수림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상록수림 지역을 더 넓히고, 동백숲은 상록수림과 인접한 곳에 따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생태적 대안이 될 것이다.

구실잣밤나무는 동백나무와 함께 이곳의 상록수림을 우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산으로, 키는 15m 정도에 이르며, 줄기 지름은 50cm 정도가 많다. 도토리 같은 열매는 꽃이 핀 다음해 가을에 익는다. 다른 참나무와는 달리 열매에 탄닌 성분이 없어 고소한 맛이 난다.

후박나무는 높이 15m에, 지름이 1m에 이른다고 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재료로 후박나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예전에는 아름드리 후박나무도 있었

던 것 같다. 그러나 후박나무 껍질이 한약재로 이름이 나면서 수난을 당해서 남쪽으로 내려와도 큰 노거수는 보기 어렵다.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없다. 한자명인 '가시목(樛茀)'에서 '가시나무'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가시나무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잎으로 구분한다. 붉게 시는 톱니가 없고, 총가시는 일부에만 톱니가 있고, 가시나무는 잎 전체에 톱니가 나있다.

생달나무는 해풍이 닿는 남해안과 제주도 등 섬에 자라는 상록활엽수 교목이다. 잘 자란 것은 키가 15m나 되고, 지름도 30cm를 넘지만 대개는 그 아래급들이 많다. 나무껍질은 녹색이며, 잎 표면은 윤기가 있고, 뒷면은 황빛이다.

모람 역시 남해안 및 섬 지방에 자라는 상록활엽수로 덩굴을 갖고 있다. 줄기에 기근(氣根)이 나서 다른 나무나 바위에 잘 붙는다. 남부지방 사찰에서 담장 등에 울러면 좋은 조경수이다.

상록수림 입상에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상록성 고사리와 고비들이 파랗다. 큰족제비고사리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숲엔 상록수 말고 푸조나무, 감나무, 소나무 등 낙엽 지는 난대활엽수들도 많다.

푸조나무는 소금기에 강해서 남해안에서 서해안을 따라 경기도까지 올라오는 나무이다. 높이가 20m까지 자라서 이 숲에서는 느티나무, 팽나무, 참나무 종류와 함께 키다리 나무에 속한다. 바닷가에 방풍림으로 심을 만한 나무이다. 수관은 느티나무처럼 우산 모양으로 넓게 퍼진다.

감나무는 키가 5m 되는 야교목으로, 가지에 잔털이 많다. 잎은 타원형으로 두꺼운 편이며 윤기가 있다. 남부지방 해풍이 닿는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백동백나무'라고도 한다.

상록수림이 끝나면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난대수종에서 온대수종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졸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들을 비롯하여 가막살나무, 갈매나무, 개어서나무, 털참나무 등등이다. 그 가운데 졸참나무-소나무군락이 가장 넓게 자리하고 있다.

첨찰산의 침엽수로는 소나무를 비롯해 비자나무, 노간주나무, 측백나무, 삼나무, 편백 등이 있다. 그러나 소나무는 난대수종에 의해 기가 죽어서 차세대가 형성되지 않아 쇠퇴하는 단계에 있고, 진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굴솔도 이곳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웅전 뒤 높은 경사에 보이는 푸른 숲도 소나무가 아니라 난대상록수림이다. 비자나무는 정상부 능선 근처 해발 400m에 수십 개체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행로에 너구리의 것조 보이는 배설물이 관찰되었다. 모니터링 기간 중에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주민들에게 청문한 결과로는 청설모, 다람쥐, 멧토끼, 족제비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넘어공용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타일은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성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 사용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넘어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형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거뜰히 이겨냅니다!

산양삼 직판 특별할인공급

지리산 산양삼 먹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산양삼

산삼은 노루나 멧돼지 새 등이 산삼씨앗을 먹고 다른곳에 배설하여 씌어나 자라는 것이고 산양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산삼의 종자를 뿌려놓고 자연 상태에서 10-20년을 기다린후 채취한다.

인삼은 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2-3년만 지나도 손가락 굵기로 크지만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위치한경남 함양군에 있는 지리산산양삼은 울창한 수림속에 잔별이 드는 산삼이 자라는 토양과 같은 조건에서 자라므로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정도밖에 자라지 않으며 토양속 무기질을 영양으로 흡수하기 위해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동안 삼이 좋은줄 알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신통 구입하지 못한 분들께 지리산 산양삼영농조합에서 직가

로 특별공급하고 있다. 공복에 생삼을 바로 먹어도 좋고 다려 먹어도 좋은 산양삼입니다. 많은 애용바랍니다.

- 자주 나른함을 느끼시는 분
- 연로하신 부모님
- 일이 많아 업무에 시달리는 분
- 손, 발, 몸이 찬 추위
- 추위나 다위를 많이 타는 분
- 공부로 늘 힘든 수험생
- 몸이 약한 아이들
-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선수

※삼령, 생삼자, 원산지가 표시된 산양삼 증명서가 동봉됩니다.

※시중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이므로 통신으로 직판만 합니다.

- 8년산 3뿌리 -300,000원 200,000원
- 8년산 6뿌리 -600,000원 300,000원
- 12년산 1뿌리 -200,000원 150,000원

문의 1566-3378
지리산산양삼영농조합
농장 (050) 963-3375
농협 1285-02-028081 일지영

가죽, 부모님, 고마운 분께 산양삼삼은 평생 잊지 못할 건강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삼옷! 「천하무적」 옷 옷가네 토종삼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삼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내용량: 1박스(80ml x 60포) 2개입분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끼얹어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인문보도자료

-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 MBC 고향은 지금 - 옷 입는 참을 최초 개발
- ▶ KBS 고향의 아침 - 참을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 SBS 한성고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잘 걸면 참을 개발
- ▶ 2003.11 한국경제 - 참을 식품은 아십니까?
- ▶ 2003.11 동아일보 - 옷 입는 참을
-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을 부작용 걱정대 난 먹어!
-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 2006.6 KBS 무엇보다은 물어보세요 - 참을면 먹이 되는 옷 건강법 알찬
- ▶ 2006.8 20 KBS 삼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알찬
- ▶ 2006.10.31 KBS 무한지대극 - 참을

【구입법 꼭 확인요...】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빙성이 뛰어난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옷가네 참을농원
무료전화: 080-838-3366